

# 중국어음운학 교육의 콘텐츠 모형 개발 연구

## - 한국 한자음을 중심으로

이 영 월  
(경희대학교)

### 1. 서론

천여 년 간의 연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국어음운학은 표음기능이 없는 한자로 음운을 기술하고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언어학 영역에서는 어려운 ‘絶學’으로 불린다. 난해한 개념과 용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모호한 해석이나 건강부회하여 풀이하는 방법들은 특수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대학의 중어중문과 전공자들은 음운학 공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한국 대학의 중어중문학과도 중국의 상황과 비슷하다<sup>1)</sup>. 심지어 중국어음운학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sup>2)</sup>, 설사 음운학 강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강의내용은 전통 중국어음운학 내용은 별 차이가 없

- 
- 1)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국어과에서도 중국어음운학 과목의 개설여부를 토의하던 중 수강생 정원 미달 즉 폐강의 우려 때문에 중국어음운학 과목은 교과과정에서 배제되었다.
  - 2)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등 극소수의 일부 대학의 중어중문학과에서 음운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다. 때문에 중국어의 알파벳인 한어병음자모를 마스터하고 절대적 수준의 초급 단계에 있는 한국의 중문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원체 생경한 중국어음운학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렵고 난해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과목이다.

그러나 중국어 음운학은 훈고학, 문자학, 어법학<sup>3)</sup> 나아가 중국고전문학, 문헌학, 교감학, 고대역사 등과 밀접한 관련성<sup>4)</sup>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 중국 언어·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淸의 段玉裁가 “음운학을 알아야 六書(한자학)를 알 수 있고, 六書를 알면 고대 경전을 읽는 데에 있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音韻明而六書明, 六書明而古經傳無不可通)”라고 한 것은 음운학의 이러한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자는 고대 동아시아의 서사체계로서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중국의 언어학계에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한자음을 통틀어 역외역음(域外譯音, Sinoenic dialects)<sup>5)</sup> 즉 한국한자음, 일본한자음, 베트남한자음으로 불려왔다.

한자음이 중국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중국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의 버나드 칼그렌(Bernard Kargen 1889-1978)에 의해서이다. 그는 10세기 서양을 풍미한 역사언어학의 고음재구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중고음과 상고음을 처음으로 재구해 내었는데 그가 참고한 자료 중에서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칼

3) 王力(1989,41)는 上古漢語의 복잡한 대명사를 음운학적으로 같은 운부(高韻部)에 배열되어 있는 정연한 체계를 찾아냈다. 즉 일인칭 ‘吾[n̄a] 余[diə] 予[diə]’는 이인칭 汝[n̄ia]와 상응하는 상고음 高韻 魚部의 글자들이다. 일인칭 我[n̄ai]와 이인칭 爾[n̄iai]도 마찬가지로 모두 高韻歌部字이며, 일인칭 台[diə]와 이인칭 ‘而[n̄iə], 乃[n̄a]’(‘乃’은 ‘而’의 이체자이기도 하다), 삼인칭 ‘其[giə], 之[tiə]’ 글자들은 모두 高韻之部 글자이다. 또한 일인칭 ‘印[n̄aŋ]’ 과 이인칭 ‘若[n̄iak]’, 역시 모두 같은 高韻陽鐸對轉이고, 일인칭 [朕diəm]과 이인칭 [戎niuəm]도 高韻侵部字이다.

4) 일부 학자들은 중국어음운학을 언어학(linguistics)의 영역이 아니라 어문학(philology)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王力(1986,1)에서 “54운동 이전의 언어연구는 대체적으로 語文學 연구”라고 말한다.

5) ‘역외역음’이란 이 용어는 역사음운학자인 사무엘 마틴(Samuel Martin)이 처음 명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는 역외역음을 보다 간편한 용어로 韓漢音, 日漢音 越漢音이라고 한다. (엄익상,2008:150)

그런이 중국음운학 연구에서 韓日 한자음의 가치를 처음 인식했던 것 (Kargen 1926:76-77)이다.

한자음 자료는 한국어전공자에게든 중국어전공자에게든 모두 소중한 연구 자료이다. 한국 한자음 연구는 주로 한자음의 전반적인 특성과 특정 典籍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한자음의 전래 시기, 전래 경로, 정착시기 등 아주 전통적인 주제는 물론, 근대·고대의 음운체계(고대한국어 어휘의 기원론, 고대한자음 유기음 및 유성음의 존재여부, 고대한국어 개음전설, 1운미 중국方音 기원설, 구개음화 중국어 영향설, 한자음 중국 남방방언 기원설, 조기관화의 특징(엄익상, 1998 외 다수, 김태경, 2008, 2009, 이영월, 2007 외 다수) 등 쟁점문제들에 대한 연구든 모두 중국 언어학과 한국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한편, 그 동안의 전반적인 연구든 특정 典籍에 대한 연구든 다분히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공유해왔으며(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교육 일선에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연구대상의 다변화와 문제 접근방법의 다양화 및 학제 간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어학 전공자들에게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언어는 옛것을 옛날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옛것을 조명할 때 비로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생경하고 난해하다고 인식되어 온 중국어음운학을 한국학생들에게는 익숙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국한자음 자료를 통하여 교육용 콘텐츠 모형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콘텐츠 내용들은 그동안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연구내용과 한국학자들에 의해 올렸던 한자음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II. 한국한자음으로 배우는 중국어음운학

오늘날 통용되는 한자어에는 과거 중국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심지어 순수 한국어처럼 보이는 말에도 위의 예처럼 옛날 중국음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한자음은 과거의 산물이나 죽어 있는 화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생물이다. 현대국어 어휘의 약 70% 이상이 중국어에서 유래되었거나 한자로 조어된 말이기 때문에 중국어 음운학교육에 더없이 좋은 생생한 자료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자음을 훈민정음을 기축으로 하여 훈민정음 자체, 상고음과 중고음, 그리고 현대음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훈민정음<sup>6)</sup>을 통한 중국어음운학 교육

훈민정음은 그 탄생 및 창제과정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발명품으로서 세계 문자사 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문자이다.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 문화의 유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 민족 문화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계 문자 발달사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듯이 훈민정음은 매우 과학적인 자질문자이고 음소문자이며 또한 음절문자이다.

그 동안 훈민정음에 관한 국어학의 연구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연구의 내용 또한 다양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은 훈민정음의 창제동기와 목적, 기원론과 제자원리, 정음 28자모체계의 성격 등을 꼽을 수 있다.<sup>7)</sup>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 대부분은 국어학 연구의 一邊倒 경향으로 훈민정음의 기본바탕이 중국음운학이라는 단정이나 추정은 여러 논저들에서 등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나 자세한 논증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영월(2007, 2008, 2009, 2010)에서는 『훈민정음』에 표출된 제자원리와 음운체계 및 28자모의 성격을 그 시대에 풍미했던 중국음운학의 학문적 배경과 등운학 이론으로 창제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자료와 방법론의 제시는 당시의 중국어음을 충실히 반영한 훈민정음이 지극히 한국적인 주제이면서 또한 중국전통음

6) ‘훈민정음’에 대한 명칭은 주지하다시피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문자체계로서의 훈민정음과 이에 대하여 해설한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예의편)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으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7) 이현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훈민정음> 615-631쪽 참조.

문학의 주제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a. 훈민정음과 한자학의 관계

세종 당시 우리의 문자생활은 주로 한문과 한자를 빌어 만든 이두(吏讀)로 이루어졌다. 근 이천년 동안 한반도의 언어문자생활의 유일한 도구 구실을 해왔던 한자와 한문의 불편함은 훈민정음이란 전혀 새로운 문자의 창제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한편, 훈민정음은 또한 한자의 영향 하에 잉태된 新文字로서 양자의 관계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 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象形而字倣古篆’<sup>8)</sup>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서 ‘상형설’은 한자의 구성 원리를 논할 때 소위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의 六書 중에서 상형(전체 한자의 3% 내외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이 여타의 字類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원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이 상형자로 인하여 한자를 상형문자라고도 통칭하고 있다.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기본자들이 모두 상형을 제자원리로 삼은 것은 한자의 구성 원리와 궤를 같이 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古篆의 의미도 역시 중국 最古의 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한 許慎의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개 한자의 標題字인 小篆과 일맥상통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한자에서 篆(大篆과 小篆을 포함하여)의 의미는 자못 중요하다. 진시황이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승상인 李斯에게 천하의 문자로 통일하게 한 통일문자가 바로 小篆이었다.<sup>9)</sup> 『설문해자』에서의 篆字를 표제자로

8) 유창균(1966)은 ‘象形’은 제자의 구성원리가 한자의 상형 방법에 의한 것으로, ‘字倣古篆’은 파스파문자와 자형상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공재석(1967, 1968), 김완진(1972, 1983, 1984), 이기문(1974, 1976)은 중국 古篆의 구성 원리를 본받은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지금까지 ‘古篆’을 해석함에 있어서 파스파문자나 아니면 고대한자나로 양분된다.

9) 秦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大篆에 비해 간략하고 정규적인 字體를 지닌 小篆은 이미 금석문자에 나타나고 있었고 秦 大良造의 商鞅 量器에 새겨진 문자는 秦 孝公 16년에 주조된 것으로 밝혀진 銘文으로서 그 형체는 모두 小篆이었으며, 일본에 유입된 新邨의 虎符도 상당히 표준적인 소전이다. 段玉裁 『說文解字注』 참조.

하여 한자를 분석한 것은 小篆이 한자연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篆字의 구성원리가 곧 한자의 구성원리가 됨을 시사한다.

b. 훈민정음 초성 17자로 배우는 중국어음운학의 三十六字母 성모체계<sup>10)</sup>

訓民正音의 初聲 17자는 모두 初發聲으로, 韻書의 字母이며, 각각 그 모양들을 본떠서(象其形而制)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 초성자들은 조음위치로는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등 七音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음방법으로는 소리의 세기차질인 ‘厲’에 따라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의 次序로 분류된다. ‘象形과 聲音의 이치’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아래의 훈민정음 초성체계와 三十六字母의 대조표로 보인다.

<훈민정음 초성체계와 三十六字母의 대조표>

	牙音	舌頭音	脣音重	脣音輕	齒頭音	正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齒音				
全清	見君 ㄱk	端斗 ㄷt	幫驚 ㅂp	非 ㅍf	精ㅈㅈ	照ㅊㅊ	影挹 ㅇʔ		
					知 卽,ㅈ				
次清	溪快 ㅋk'	透呑 ㅌt'	滂漂 ㅍp'		清ㅈㅈ'	穿ㅊㅊ'	曉虛 ㅎx		
					徹 侵 ㅈ				
全濁	群虬 ㄱg	定覃 ㄷd	並步 ㅂb	奉 ㅍv	從ㅈdz	牀ㅊdʒ	匣洪 ㅇʔ		
					澄慈 ㅈ				
不清 不濁	疑業 ㅇ	泥那 ㄴn	明彌 ㅁm	微 ㅁm			喻欲 ㅇø	來閩 ㄹl	日穰 ㄷ ㄹ
全清					心ㅈs	審ㅈㅈ			
					心 戍 ㅈ				
全濁					邪ㅈz	禪ㅈㅈ			
					邪 邪 ㅈ				

10) 중성체계 11자와 중국어 등운학과의 관계는 지면 제한으로 생략하며(자세한 내용은 이영월, 2008 참조), 보다 상세한 것은 향후 연구로 미루어 둔다.

위의 도표에서 보이듯 초성 17자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상의 분류방법은 중국음운학의 三十六字母, 七音, 清濁등 분석방법의 원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즉 성모를 조음위치에 따라 五音이나 七音으로 나눈 것 말고도, 고대 중국인들은 「五方」이니, 火水木金土 「五行」이니, 「五臟」이니 宮商角徵羽 五聲이니 하는 말로 五音에 대응시켜 음의 이치(音理)를 설명하였다. 아래의 도표로 훈민정음 초성체계와 오행, 오시, 오방, 오음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

소리 분류	조음기관의 생태적특징	소리의 청각적특징	소리의 시각적 특징	五行	五時	五方	五音
喉音	濇而潤	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水	冬	北	羽
牙音	錯而長	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木	春	東	角
舌音	銳而動	轉而颺	如火之轉展而揚揚也	火	夏	南	徵
齒音	剛而斷	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金	秋	西	商
脣音	方而合	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土	季夏	中央	宮

이러한 전통중국어 음운학의 개념과 용어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학적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고대 중국인들만의 언어와 자연의 대칭 구조의 존재를 느끼는 방법인 것이다. 지나친 억측이나 신비로운 것을 제외한 언어에 대한 순박한 인식론은 우리가 그 시대의 음운 체계와 음운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음운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최대의 난점은 음절문자 또는 상형문자의 음소체계를 분석하는 것과 그 음가를 측정하는 것인데, 훈민정음의 초성 17자 체계는 三十六字母의 중국어성모체계를 오늘날의 국제음성기호 못지않게 명쾌하게 재구해 냈다는 데 그 창의성이 있다. 이는 명대 서양 선교사들이 작성한 <西儒耳目資>(1625년)보다 앞섰을 뿐만 아니라 1958년 한자의 음표기법인 <한어병음자모방안>보다 5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중국어음운학사에서 차지하는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특히 음운학적 위상은 높히 평가되어야 한다.

## 2. 중고음과 상고음 흔적을 통한 중국어음운학 교육

중국어음운학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한국문헌자료 중에서 『훈민정음』자료 자체 외에도 기본적으로 한자가 전래된 이후부터 19세기까지의 모든 한자음의 표기자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한자음의 표기자료를 한자로 음표기를 한 것과 훈민정음으로 음표기를 한 것, 즉 표기수단의 차이로 크게 二分할 수 있다. 또한 한자음의 표기자료를 시대에 따라 15세기의 훈민정음 창제(1443)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크게 한국한자음과 중고음, 그리고 상고음으로 양분하여 살펴본다.

### a. 한국한자음의 중고음 흔적

한국한자음을 중국 현대음과 비교하면 유사성이 별로 크지 않아 그 파생관계를 쉽게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의 중고음과 비교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다음 자료는 엄(2002)에서 인용한 것이다.

- (1) ㄱ.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영어 학습을 하고 있다.  
 ㄴ. 學生들이 學校 教室에서 英語 學習을 하고 있다.

(1)에서 한자로 쓴 단어들은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다만 발음만 다를 뿐이다.

(2)	한국 한자음	중국 현대음
學生	haksɛŋ	eyeʂəŋ
學校	hakkjo	eyeɕiaʊ
教室	kjosil	teiaʊʂɿ
英語	jəŋə	inɣ
學習	haksip	eyeɕi

(3)	한국 한자음	중국 중고음	중국 현대음
學生	haksɛŋ	ɣɔkʃɛŋ	eyeʂəŋ



學校	hakkjo	ɣɔkɣau	eyeciaɔ
教室	kjosil	kaueĩt	teiaɔsu
英語	jəŋə	ĩeŋŋio	iny
學習	haksip	ɣɔkziəp	eyeci

(3)은 한국 한자음이 중국 중고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고 입성 운미 \*-p, \*-t, \*-k가 중국 현대음에서는 모두 탈락한 반면, 한국 한자음에는 -p, -l, -k로 남아있다. 중고음은 대략 지금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수당(隋唐)대의 중국어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한국 한자음은 한국어일까? 중국어일까? 유래로 보면 중국 고대 음이지만, 이미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어에 혼용되었으므로, 한국음이기도 하다<sup>11)</sup>.

한자음은 중국 원음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음으로, 변화가 심했던 중국 북방 방언보다 오히려 중국 고음에 가깝다. 한국 한자음이 중국 중고음을 반영한다고 해서, 중고음 시기에 한자가 고대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자가 고대 한국인에게 전래된 것은 중고음 시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국어학자들은 흔히 기원전 108~107년에 설치된 한사군(漢四郡)을 염두에 두고, 늦어도 기원전 1세기에 한자가 전래되었을 것을 추정하고 있다. 한사군은 분명 고대 한민족(韓民族)과 한족(漢族)의 대규모 접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두 언어 간에 언어 접촉이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원전 1~2세기는 중국 한(漢)나라 때로 언어학적으로는 상고음(上古音 Old Chinese) 시기에 속한다. 상고음은 언어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음으로 대략 태초부터 漢나라 말기인 기원후 2세기까지 중국어를 지칭한다. 상고음 시기에 한자가 한국으로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언어학적 논의를 아래의 한국한자음의 상고음 흔적을 통해 살펴본다.

11) 물론, 수용 당시 한국어 음운체계 안에서 다소 변형되어 정착했을 터이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한국어의 변화를 수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증적 논의는 본고에서는 하지 않기로 한다.

## b. 한국한자음의 상고음 흔적

한자음은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당시의 중국음을 반영한다<sup>12)</sup>. 그러나 한국한자음은 어느 특정한 한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上古漢語시기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최영애, 2004). 이는 한국한자음체계에 여전히 중국의 상고음을 반영하는 한자음의 古音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사실로 미루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한자음을 의심 없이 ‘切韻’음의 반영으로만 보아 또 하나의 중고음연구의 참고자료로써 비교분석하는 지금까지의 굳어진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한자음의 상당수가 더 이른 시기 즉 상고음의 반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상고음과의 교섭은 한자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sup>13)</sup> 지금까지 한국어 고유어휘라고 알려진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바람(風)’, ‘가람(江)’, ‘나무잎의 잎(葉)’, ‘밤과 낮의 낮(日)’ ‘호랑이 범’, ‘설날의 날(日)’, 그리고 ‘너(爾)’와 ‘나(吾)’ 등 수십 개의 낱말들이다<sup>14)</sup>. 아래에 몇 단어만 예로 보인다.

(4)	한국 한자음	중국 상고음	중국 현대음
風(바람)	baram	* pl̩əm	fəŋ
筆(붓, 필)	but, phil	* piət	bi
虎(호랑이)	xɔranj	* xlang	xu
月(달)	dal	* ŋ̩wat	ye
日(낮, 날, 일)	nat, nal, il	* niēt	ɿɿ
刃(날, 인)	nal, in	* niēn	ɿən

12) 한국한자음이 반영하는 중국음의 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5세기 南朝吳音에서 6, 7세기의 長安音, 8, 9세기의 長安音(혹은 慧琳의 長安音), 10세기 宋代開封音까지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여기서 다시 한자의 전래시기에 대하여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13) 이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최희수(1996)이다.

14) 자세한 내용은 尙玉河(1983, pp. 197~222); 鄭仁甲(1986) 등 참조.

(4) 역시 한국 한자음이 중국 상고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단어들은 두음 즉 성모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말음 즉 운미 또한 서로 대응한다. 날 日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고음(중고음 포함)의 말음 -l가 한국한자음에서 체계적으로 바뀐 현상으로서 엄익상(2008: 218)은 이것을 ‘날일동원설’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바람’이나 ‘호랑이’ 같은 단어들의 한자음은 複聲母로 재구한 것으로 중국어 상고음의 복성모 존재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자들이다.

### 3. 현대 표준중국어의 한어병음방안을 통한 중국어음운학 교육

현대중국어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어병음방안이다. 이 한어병음은 라틴자모로 현대표준중국어(普通話)의 발음을 표기한 자모체계이다. 1958년의 ‘한어병음방안’과 1996년의 ‘漢語拼音正詞法基本規則’의 공표는 현대중국어의 음절과 어휘에 대한 표기규범들을 마련해 놓았다. 2000년 10월에는 중국역사상 첫 언어문자 관련 법안인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이 정식 공표되었으며, 이 ‘통용어언문자법’의 시행(2001년 1월부터)으로 한어병음방안은 중국의 인명, 지명 및 중국어문헌 자료 로마자모표기법의 규범으로 확정되었고, 초중고 및 대학의 공교육뿐만 아니라 詞典注音, 도서편목, 특히 오늘날 컴퓨터나 핸드폰 등 디지털 기기의 문자입력방법의 기본원리로 적용됨으로써 한어병음의 합법적 지위와 사용범위는 확고부동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어병음방안이 갖고 있는 언어 정책적 및 언어학적 의미와 실용적 가치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어교육 현장의 일면을 반영하는 대학중국어 교육의 강단에서는 한어병음방안의 음운학적 특징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약하다<sup>15)</sup>. 뿐만 아니라 한어병음과 한글자모의 모국어자모대입법은 “쉽고 편한 교육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실제 대응

15) 이영월(2010)에서는 한국 대학중국어 10종 교재에서 한어병음방안과 한어병음정사법의 표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적을 하였다.

표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특히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세척에 근거해 보면 중국인 인명과 지명에 대한 표기법 문제는 지극히 한국 언어학적인 내용이다.

본 소절에서는 한어병음방안의 탄생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중국어 교육에 환류될 뿐만 아니라 한글 외래어표기법 등 한국어교육에도 응용할 수 있는 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sup>16)</sup>

#### a. 한어병음방안 탄생 전후 百年史를 통한 중국어 표기법 역사의 교육

중국어표기법 연구사 측면에서 한어병음방안 및 그 이전의 중국어 표기법에 관한 연구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이다. 한어병음방안 탄생 전후 백년사를 통하여 중국어표기법 역사를 돌아보면<sup>17)</sup>

첫째, 外國語 譯音字母方案들로 형성된 16세기부터 서양종교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자-한어역음방안과 19세기 말에 탄생한 웨이드-자일스표기법은 중국어표기법 역사에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이다.

둘째, 20세기 초 출현한 중국식 표기형식인 주음부호는 단순한 표기법이 아니라 識字의 보조수단의 범주를 넘어서서 중국의 자주적인 문자개혁의 시점이며 특히 개음을 독립시킨 과감한 조치는 非音素文字를 音素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雙拼”에서 “三拼”으로 一躍함으로써 표기부호의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新中國 탄생을 맞아 문맹퇴치의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한 1958년의 한어병음방안은 인민대중의 참여가 여느 때보다 활발한 것이 기존의 방법과 매우 다른 점이며 교육과 언론매체 등 중국 전역으로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한어병음자모의 광범위한 효용을 확인하였다.

한어병음방안이 비록 적지 않은 문제점도 제기되지만, 역사표기법으로서의 수월성에 의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의 직음법, 반절법보다 훨씬 적은 20여개의 병음자모만으로 수만 개에 달하는 한자(음)를 표시한 것은 표준어인 普通話의 보급에 유력한 도구가 되었고, 병음방안은 15개<sup>18)</sup> 소수민

16) 한어병음방안 및 정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현대중국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17) 본 소절의 주요 내용은 이영월(2009)를 참조.

족들의 문자창제에 활용되었다. 현재 중국어를 배우려는 非漢字圈에 있는 3000만 외국인(王理嘉 2005)들에게 한어병음방안은 중국어교육의 지름길이 되었다.

### b. 한국어 외래어표기법에서의 한어병음방안의 운용

지금의 『외래어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에 공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최초의 표기원칙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속성상 번역이 어려운 외래어 고유명사는 현지 발음으로 적는다고는 하지만 그 표기는 사람마다 달라서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1997년 9월 24일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국 중앙위원회 총서기 ‘江澤民’을 한자음 ‘강택민’에서 현지음(또는 원음)<sup>19)</sup> ‘장쩌민’으로 표기를 결정하기로 결정한 이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들<sup>20)</sup>에서는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세칙에 따라 중국 인명·지명의 고유명사는 원음주의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표기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중국인 인명표기법은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란현상은 중국어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sup>21)</sup> 한국인 화자들에게 모두 나타난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문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일선, 나아가 출판사, 신문사, 라디오·텔레

18) 15개 소수민족의 문자는 壯文, 布依文, 黎文, 侗文, 苗文, 彝文, 哈尼文, 僂僂文, 納西文, 載瓦文, 佧文, 白文, 土家文, 瑤文, 獨龍文 등이다. 馬麗雅 외 4人 編 2007

19) 『외래어표기법』 제4장 제2항의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에서는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의 본국 발음을 ‘원지음’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현지음’ 또는 ‘원음’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원지음을 현지음이라 하겠다.

20) 1997년부터 『조선일보』가 중국어의 인명과 지명을 현대중국어(현지음)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 KBS도 중국어 고유 명사를 현지음으로 발음하기 시작했다.

21) 이영월(2010)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교재 29권과 중국 북경에 있는 세 대학의 한국어전공학생(漢族과 朝鮮族, 재중 한국유학생을 포함) 269명, 한국 K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1,828명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중국인 인명 한글표기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원음 표기의 용이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비전 등 언론매체 외에도 도서관 서지, 색인, 목록이나 각종 관광안내책자, 일반도서 및 다른 영역에까지 그 영향은 확대되어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명 표기법 교육은 표준어 및 외래어표기에 관한 올바른 맞춤법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한글에 의한 정상적인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언어교육의 가치 및 통일된 규범화 정책의 필요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한어병음방안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 Ⅲ. 결론

우리는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한국인(혹은 대학)이 중국어 음운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중국어 음운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음운학을 가르쳐 주기 위함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중국어 음운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 본고는 그것이 중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한국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한국학자로서 한국적인 중국 언어학 연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방향일지도 모른다. 혹자는 한국의 중문과는 중국의 학문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학문은 교류이다. 허성도(2001)는 한국인의 시각으로 중국인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한국적인 중국어학 연구의 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계에 속하므로 이 두 언어를 비교하는 것을 대비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자음과 중국음의 비교일 경우 한자음이 중국의 고음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비교음운론(comparative phonolog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한국적인 중국 언어학 연구의 주제인 한국한자음으로 생경하고 난해하다고 인식되어 온 중국어음운학을 친숙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국한자음 연구는 한국의 중국 언어학도들의 몫이다.

❖ 참고 문헌

- 김태경, 「일부 章系字의 상고음 설근음설」, 『중국어문학논집』, 51호 2008.
- 김태경, 「曉匣母字와 日母字의 상고음」, 『중국어문학논집』, 51호 2008.
- 박병채, 『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
- 엄익상, 『중국어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한국문화사, 2002.
- 엄익상, 『한국 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 한국문화사, 2008.
- 유창균, 『三國時代의 漢字音』, 민음사, 1991
- 이기문, 『신정판국어사개설』, 태학사, 2001.
- 이영월, 「훈민정음 초성체계 재해석」, 『중국어학연구』 42집, 2007
- 이영월, 「중국어표기법역사를 통한 한어병음방안의 의의」, 『중국어문학논집』 57호, 2009.
- 이영월, 「중국어 인명 한글 표기의 현주소」, 『중국어언어연구』 33집, 2010.
- 최영애, 「중국 고대 음운학에서 본 한국어 어원 문제」, 『중국어학의 주제탐구』, 한국문화사, 2004.
- 최희수, 『조선한자음연구』, 한국문화사, 1996.
- 段玉裁, 『說文解字注』
- 馬麗雅 외 4人 編, 『中國民族語文政策與法律術評』, 北京, 民族出版社, 2007.
- 버나드 칼그렌, 『古代漢語音韻學概要』, 최영애 역, 민음사, 1985.
- 尙玉河, 「“風曰孛纜”和上古漢語復補音聲母的存在」, 『語言學論叢』8, 北京:商務, 1981.
- 李得春, 『漢朝語言文字關係史』, 延邊: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2
- 李方桂, 「上古音研究」, 『清華學報』 新9卷 1-2, 臺北:清華學報社, 1971
- 李思敬, 『音韻』, 北京:商務, 1985.
- 王力, 『漢語語法史』, 商務印書館, 1989.
- 王力, 『漢語語音史』, 商務印書館, 1986.
- 鄭仁甲, 「朝鮮語固有詞中的“漢源詞”試探」, 『語言學論叢』10, 北京:商務, 1983.

❖ ABSTRACT

Developing contents model of Chinese phonology education  
- By Focusing on Korean-Chinese character phonetic

Lee, Young Wol

Chinese phonology is called 'juexue(絶學)' in Chinese linguistics field. For this, students of in Chinese universities as well as college students in Korea is unwilling to learn it. Chinese character phonetic is a very valuable resource in Sino-China comparative study as well as the Chinese phonology area. This study was attempt to develop the content model on education of Chinese phonology, such as Middle Chinese, Old Chinese, using close the data of Chinese character phonetic for students of Korea. In addition, I also make it known that contents of this paper is not a new discovery or analysis but recycling research of existing.

---

**Key Words**

중국어음운학 교육, 한국한자음, 훈민정음, 중고음, 상고음

Education of Chinese phonology, Korean-Chinese character phonetic,  
Hunminjeongeum(Korean script), Middle Chinese, Old Chinese

논문접수일: 2010. 10. 25.

심사완료일: 2010. 11. 30.

게재확정일: 2010. 12. 10.